

40장 위로하시는 여호와

36-39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이야기에서는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 예언되었다. 40-55장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복음이다. 40-48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해 주시고, 49-55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곤경에 빠뜨린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중요하게 알려 준다.

하나님께서서는 구원을 이루실 때에 여호와의 종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는데, 고레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인물을 여호와와 종으로 제시한다. ‘여호와와 종의 노래’ (42:1-9; 49:1-9; 50:4-11; 52:53-12)는 다른 이야기들과 교차적으로 기록되었다.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진중하게 생각하고 반응하도록 인도하는 기록 방식이라 생각된다.

이사야서의 후반부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에게 ‘위로의 복음’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. 이 부분에서는 우상에 대한 논쟁과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 준다. 사람이 만든 우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시므로, 그러한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새로 지으셔서 친히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.

이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교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.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의 약속과 함께 심판의 경고를 붙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심정에 들어가도록 서술하고 있다.

1. 위로의 복음을 약속함 (40:1-11)

“너희는 위로하라. 내 백성을 위로하라” 하는 40장 초두의 말씀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선포된 복음이다. 그들이 위로를 받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여호와께로부터 사함을 받았고 그 결과 포로 생활이 끝났기 때문이다. 이러한 복음이 포로 된 주님의 백성에게 정다히 전파될 것이다 (40:2).

여호와께서는 이 복음을 외치라고 하시지만, 이 명령을 받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.¹⁾ 여호와께서 그 길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는 대로가 놓이고 높은 산과 골짜기가 메워져서 여호와와 길이 될 것이다.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날 때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고, 사람의 아름다움은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이다. 지금 바벨론이 큰 영광을 누리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풀의 꽃처럼 사라질 것이다(40:3-8).

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친히 구원을 베푸시는데, 그분의 강한 팔이 원수에게는 심판의 능력이지만 주님의 백성에게는 목자의 팔과 같다. 주님께서는 어린양을 그 팔로 안으시면서 온순히 인도하신다. 그들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그분의 보상과 상급이다(40:9-11).

2.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(40:12-20)

이사야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가르친다.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의 지혜로 다스리신다.

열방은 통 안의 물 한 방울과 같고 저울 위의 적은 티끌에 불과하다. 따라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거나 그 신들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미련한 일이다.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이기 때문에 산림의 모든 짐승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.

하나님께서서는 구원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심을 친히 계시하셨다. 사실

1) 이사야 40-55의 맥락에서 보면 여기에서 무명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‘여호와와 종’이다. A. van der Woude, “Can Zion Do Without the Servant in Isaiah 40-55?” *CTJ* 39 (2004), 116.

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일은 여호와께서 무능하신 것으로 비칠 수 있었고, 실제로 이방 사람들은 “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?” 하고 조롱하기도 하였다(시 42:4, 10). 교만한 세상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.

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우상과 비교한다. 여호와께서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조롱한다(40:19-20). 이사야는 다른 세 곳(41:6-7; 44:9-20; 46:5-7)에서 피조물을 신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조롱한다. 우상은 스스로 설 수도 없고 넘어지지 않도록 장인이 수고해야 한다. 이러한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.

3. 거룩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(40:21-26)

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크신 능력을 선포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신다. 하나님은 하늘을 편 분이시고 땅의 귀인들도 회리바람으로 초개처럼 몰아가는 분이다. 거룩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우상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.

4.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(40:27-31)

따라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포기하셨다고 생각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된다.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어서 날아오를 것이며, 달음박질하거나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.

40장 익힘 문제

- 1) 1절의 ‘너희는 위로하라. 내 백성을 위로하라’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선포된 말씀입니까? (39장, 1절)
- 2) 그 위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? (2절)
- 3) 외치는 자의 소리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 광야와 사막에는 무슨 일이 생길 것입니까? (3절)
- 4) 외치는 자의 소리에 따르면, 풀과 꽃처럼 시들고 마르게 될 모든 육체와 대비하여 영영히 서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? (6-8절)
- 5)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셔서 다스리실 때는 무엇과 무엇이 있을 것입니까? (10절)
- 6) 이사야는 모든 열방 위에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말하였습니까? (18-26절)
- 7) 이스라엘이 낙담하여 피곤하거나 무능할 때도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어 날개 치며 올라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? (29-31절)